

대학생 안부 전화로 어르신들 외로움·고립감 감소시킨다

전주대학교 보건관리학과-성예노인복지센터, 지난 23일 지역 상생 협약 체결
대학생들 봉사 활동 통해 노인 인식개선·실습 등 상호협력관계 형성 노력키로

전주대학교는 보건관리학과 주관으로 지난 23일 성예노인복지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독거노인에 따뜻한 겨울을 위한 배스트(조끼) 제공 및 2022년 봉사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독거노인 대상 봉사 활동은 전주대 보건관리학과 'With동행' 동아리가 코로나 19로 인해 이웃과의 왕래가 줄어들어 따라 독거노인의 외로움과 고립감이 증가하는 사회현상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독거노인에 주기적 통화로 고립감 감소시키기'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

보건관리학과 김삼미 교수 지도하에 주기적인 안부 전화를 통한 '외로움과 고립감 감소'와 취미한 음성데이터를 분석해 외로움 측정모델을 개발하자는 사업이 구상됐으며, 전주대 LINC+사업단 HATCH 리빙랩 연구프로그램 사업 지원을 통해 노인들에게 '배스트(조끼)' 제공하게 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대학생들이 노인에 대한 봉사 활동을 통한 인식개선 및 실습 등에 대해 상호협력관계 형성을 위해 공동



지난 23일 열린 지역 상생 업무협약식에서 전주대학교 보건관리학과와 성예노인복지센터가 어르신들에게 제공할 조끼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으로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예노인복지센터 안미숙 센터장은 "독거노인에 대해 대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음에 기쁘게 생각한다"며 "어르신들이 지역 사회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변에 홀로 사는 어르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주대 보건관리학과장 정지나 교수

는 "보건복지 분야에서 활동하게 되는 졸업생들이 노인에 대한 봉사 정신을 함양하는 지역 사회 공헌형 인재로 양성하는 계기가 됐으며, 4차산업 시대에 맞는 라이프 로그 데이터 수집 분석을 접하는 기회가 마련됐다"며 "4차산업 시대의 도구를 활용해 대학이 지역 사회와 끊임없이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부 jkg8@chunnet



전주대 · 성예노인복지센터 협약, 독거노인에 봉사 대학생의 전화통화로 외로움 · 고립감 덜쳐내세요!

전주대학교는 보건관리학과 주관으로 지난 23일 성예노인복지센터(원장 안마숙)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독거노인에 따뜻한 겨울을 위한 베스트(조끼) 제공 및 2022년 봉사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독거노인 대상 봉사 활동은 전주대 보건관리학과 “With동행” 동아리가 코로나19로 인해 이웃과의 왕래가 줄어들어 따라 독거노인의 외로움과 고립감이 증가하는 사회현상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독거노인에게 주기적 통화로 고립감 감소시키기”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했다.

보건관리학과 김상미 교수 지도하에 주기적인 안부 전화를 통한 ‘외

로움과 고립감 감소와 취독한 음성 데이터를 분석해 외로움 측정모델’을 개발하자는 사업이 구상, 전주대 LINC+사업단 HATCH 리빙랩 연구프로젝트 사업 지원을 통하여 노인들에게 “베스트(조끼)”제공하게 되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대학생들이 노인에 대한 봉사 활동을 통한 인식개선 및 실습 등에 대해 상호협력관계 형성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예노인복지센터 안마숙 센터장은 “독거노인에 대하여 대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음에 기

쁘게 생각한다”며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변에 홀로 사는 어르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주대 보건관리학과장 정지나 교수는 “보건복지 분야에서 활동하게 되는 졸업생들이 노인에 대한 봉사 정신을 함양하는 지역 사회 공헌형 인재를 양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4차산업 시대에 맞는 라이프 로그 데이터 수집 · 분석을 접하는 기회가 마련됐다”며 “4차산업 시대의 도구를 활용해 대학이 지역 사회와 끊임 없이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혜 기자

독거노인 겨울조끼 제공·봉사계획 논의

전주대-성예노인복지센터, 협약 상호협력 관계 형성 노력키로

전주대학교는 보건관리학과 주관으로 성예노인복지센터(원장 안미숙)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독거노인에 따뜻한 겨울을 위해 배스트(조끼) 제공 및 2022년 봉사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독거노인 대상 봉사 활동은 전주대 보건관리학과 'With동행' 동아리가 코로나19로 인해 이웃과의 왕래가 줄어들어 따라 독거노인의 외로움과 고립감이 증가하는 사회현상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독거노인과 주기적 통화로 고립감 감소시키기'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

보건관리학과 김상미 교수 지도하에 주기적인 안부 전화를 통한 '외로움과 고립감 감소와 취약한 음성데이터를 분석하여 외로움 측정모델'을 개발하자는 사업이 구상되었으며, 전주대 LINC+사업단 HATCH 라빙랩 연구프

로그램 사업 지원을 통해 노인들에게 배스트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대학생들이 노인에 대한 봉사 활동을 통한 인식개선 및 학습 등에 대해 상호협력관계 형성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주대 보건관리학과장 정지나 교수는 "보건복지 분야에서 활동하게 되는 졸업생들이 노인에 대한 봉사 정신을 함양하는 지역 사회 공헌형 인재를 양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4차산업 시대에 맞는 라이프 로그 데이터 수집·분석을 접하는 기회가 마련되었다"면서 "4차산업 시대의 도구를 활용하여 대학이 지역 사회와 끊임없이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고병권 기자



전주대-성예노인복지센터, 지역상생 협약 체결

전주대는 지난 23일 성예노인복지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대학생들이 노인에 대한 봉사 활동을 통한 인식개선 및 실습 등에 대하여 상호협력관계 형성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주대 정지나 교수는 “보졸업생들이 노인에 대한 봉사 정신을 함양하는 지역 사회 공헌형 인재를 양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4차 산업 시대에 맞는 라이프 로그 데이터 수집분석을 접하는 기회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조석창기자



전주대학교는 보건관리학과 주관으로 지난 23일 성예노인복지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독거노인에게 따뜻한 겨울을 위한 베스트 제공 및 2022년 봉사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독거노인과 With 동행 추운 겨울 따뜻하게

전주대·성예노인복지센터 업무협약 체결, 어르신 대상 봉사

전주대학교는 보건관리학과 주관으로 지난 23일 성예노인복지센터(원장 안마숙)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독거노인에게 따뜻한 겨울을 위한 베스트(조끼) 제공 및 2022년 봉사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독거노인 대상 봉사 활동은 전주대 보건관리학과 'With 동행' 동아리가 코로나19로 인해 이웃과의 왕래가 줄어들어 따라 독거노인의 외로움과 고립감이 증가하는 사회현상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독거노인께 주기적 통화로 고립감 감소시키기'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했다.

보건관리학과 김상미 교수 지도하에 주기적인 안부 전화를 통한 '외로움과 고립감 감소와 위대한 물성 데이터'를 분석해 외로움 측정모델'을 개발하자는 사업이 구상됐으며, LINC+사업단 HATCH 리빙랩 연구프로그램 사업 지원을 통해 노인들에게 조끼를 제공하게 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대학생들이 노인에게 대한 봉사 활동을 통한 인식개선 및 실습 등에 대해 상호협력관계 형성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마숙 센터장은 "독거노인에 대해 대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음에 기쁘게 생각한다"며 "어르신들이 지역 사회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 수 있도록 주변에 홀로 사는 어르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보건관리학과장 정지나 교수는 "보건복지 분야에서 활동하게 되는 졸업생들이 노인에 대한 봉사 정신을 함양하는 지역 사회 공헌형 인재를 양성하는 계기가 됐으며, 4차산업 시대에 맞는 라이프로그 데이터 수집·분석을 접하는 기회가 마련됐다"며 "4차산업 시대의 도구를 활용해 대학이 지역 사회와 끊임없이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묘 기자highopy@naver.com

“주기적 통화로 고립감 이겨내세요”

전주대-성에노인복지센터, 봉사활동 업무협약 체결

전주대학교는 보건관리학과 주관으로 지난 23일 성에노인복지센터(원장 안미숙)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독거노인에 따뜻한 겨울을 위한 베스트(조끼) 제공 및 오는 2022년 봉사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독거노인 대상 봉사 활동은 전주대 보건관리학과 'With동행' 동아리가 코로나19로 인해 이웃과의 왕래가 줄어들어 따라 독거노인의 외로움과 고립감이 증가하는 사회현상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독거노인에게 주기적 통화로 고립감 감소시키기'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했다.

보건관리학과 김상미 교수 지도하에 주기적인 안부 전화를 통한 '외로움과 고립감 감소와 휘독한 음식 아이디어를 분석해 외로움 측정모델'을 개발하자는 사업이 구상됐고 전주대 LINC+사업단 HATCH 리빙랩 연구프로젝트 사업 지원을 통해 노인

들에게 '베스트'를 제공하게 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대학생들이 노인에 대한 봉사 활동을 통한 인식개선 및 실습 등에 대해 상호협력관계 형성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에노인복지센터 안미숙 센터장은 "어르신들이 지역 사회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변에 홀로 사는 어르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전주대 보건관리학과장 정지나 교수는 "보건복지 분야에서 활동하게 되는 졸업생들이 노인에 대한 봉사 정신을 함양하는 지역 사회 공헌형 인재를 양성하는 계기가 됐으며, 4차산업 시대에 맞는 라이프 로그 데이터 수집, 분석을 접하는 기회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대-성예노인복지센터, 협약

독거노인 대상 조끼 제공 등

전주대 보건관리학과는 지난 23일 성예노인복지센터(원장 안미숙)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독거노인에게 따뜻한 겨울을 위한 베스트(조끼) 제공 및 2022년 봉사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진>

독거노인 대상 봉사 활동은 전주대 보건관리학과 "With동행" 동아리가 코로나19로 인해 이웃과의 왕래가 줄어들어 따라 독거노인의 외로움과 고립감이 증가하는 사회현상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독거노인에게 주기적 통화로 고립감 감소 시키기'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했다.

보건관리학과 김상미 교수 지도하에 주기적인 안부 전화를 통한 '외로움과 고립감 감소와 취득한 음성데이터를 분석해 외로움 측정모델'을 개발하자는 사업이 구상되었으며, 전주대 LINC+사업단 HATCH 리빙랩 연구프로그램 사업 지원을 통해 노인들에게 조끼를 제공하게 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대학생들이 노인에 대한 봉사 활동을 통한 인식개선 및 실습 등에 대해 상호협력관계 형성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주대 보건관리학과장 정지나 교수는 "보건복지 분야에서 활동하게 되는



졸업생들이 노인에 대한 봉사 정신을 함양하는 지역 사회 공헌형 인재를 양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4차산업 시대에 맞는 라이프 로그 데이터 수집분석을 접하

는 기회가 마련됐다"며 "4차산업 시대의 도구를 활용해 대학이 지역 사회와 끊임 없이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매일

2021년 12월 28일 화요일 014면 사람들



전주대·성예노인복지센터, 독거노인 봉사 '맞손'

전주대학교 보건관리학과는 지난 23일 성예노인복지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 독거노인에게 따뜻한 겨울을 위한 조끼 제공 및 2022년 봉사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독거노인 대상 봉사 활동은 전주대 보건관리학과 With동행 동아리의 '독거노인에게 주기적 통화로 고립감 감소시키기'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

김삼미 교수 지도하에 주기적인 안부 전화를 통한 '외로움과 고립감 감소와 취약한 응급대처를 분석해 외로운 죽음모델'을 개발하는 사업을 구상, 전주대 LINC+사업단 HATCH 리빙랩 연구프로그램 사업 지원을 통해 노인들에게 '베스트(조끼)'를 제공하게 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대학생들이 노인에 대한 봉사 활동을 통한 인식개선 및 실습 등에 대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성예노인복지센터 임미숙 센터장은 "독거노인에 대해 대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봉사할 수 있음에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어르신들이 지역 사회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변에 홀로 사는 어르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정지나 학과장은 "보건복지 분야에서 활동하게 되는 졸업생들이 노인에 대한 봉사 정신을 함양하는 지역 사회 공헌형 인재를 양성하는 계기가 되고, 또 4차산업 시대에 맞는 라이프 로그 데이터 수집·분석을 접하는 기회도 마련됐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